

# 삼성D는 애플... LGD는 'OLED TV' 덕분에... '好好'

## 삼성디스플레이

아이폰 신제품에 OLED 공급  
3분기 영업이익 9000억 추정

## LG디스플레이

6월比 9월 패널가격 소폭 상승  
3분기 영업이익 820억 추정



아이폰XS맥스와 XS. /애플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 신제품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공급하면서 올 3분기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2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LG디스플레이도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9일 IB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이 9000억원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용 패널 공급과 리지드 OLED 수요가 회복하는 등 OLED 판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2

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LG디스플레이 또한 3분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OLED TV 등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다.

우선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프리미엄 신제품 모델 아이폰XS와 아이폰XS에 플렉시블 OLED를 공급,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아이폰X



LG디스플레이의 75인치 투명 플렉서블 OLED. /LG디스플레이

R은 보급형으로 LCD가 탑재됐다.

또 플렉시블 OLED보다 가격이 저렴한 리지드 OLED는 공급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는 저조한 실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9680억원으로 올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었다.

LG디스플레이도 하반기 흑자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매출액 6조1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흑자전환을 기대했다.

장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3분기 면적 출하 증가 증가세는 당초 예상했던

한자리수 중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블레디드 판기도 모바일용 패널 비중 증가로 인해 전분기 대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은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을 820억원으로 내다봤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6월 대비 9월의 패널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분기 평균으로 보면 오히려 하락했다"며 "3분기 평균 환율이 2분기 대비 상승했다는 점과 회사측의 원가 개선 및 효율화 노력이 하반기 손익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4분기에는 매출 6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OLED TV 패널 출하량은 90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에 이어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교섭' 타결

기본급·연한수당·비행수당 등 인상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 18일 노사합의로 도출된 '2018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2%로 가결됨에 따라 8일 오후조인식을 갖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이하 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은 지난 8월 첫 교섭을 실시한 이래 총 7차례 이뤄졌으며 ▲기본급 인상 ▲연한수당 인상 ▲중·소형기 기장 비행수당 단가 인상 ▲화물기 비행수당 단가 인상 등을 포함했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는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향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8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왼쪽)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조인식에 참석한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단말기 100만원... 가계통신비 인하돼야"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출고가 100만 원을 뛰어넘는 등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올해 출시된 갤럭시 S9(64G)는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64G)는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월평균 가계 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다"며 "가계통신비

### <최근 5년간 아이폰 출고가 비교>

모델명	출시시기	가격
아이폰6 (16G)	2014년 10월	789,800원
아이폰6S (16G)	2015년 10월	869,000원
아이폰7 (32G)	2016년 10월	869,000원
아이폰8 (64G)	2017년 11월	946,000원
아이폰X (64G)	2017년 11월	1,360,700원
아이폰X (256G)	2017년 11월	1,557,600원

인하정책은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나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 AI토론회 직원 4만명 참가 '열기'

사내 집단지성 시스템 '모자이크'

빅스비 지도 등 역량 강화에 동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도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집단지성 시스템 '모자이크'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생활 속 AI 시나리오를 토론했다'란 주제로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대토론회를 펼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김현석 삼성전자 CE 부문장과 고동진 IM 부문장이 함께 토론회를 이끌며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기도 했다.

두 부문장은 1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쟁이 치열한 경영 환경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험과 가치가 무엇인지 구기 기울이며 3~5년 후 미래를 그려보아야 한다"며 "다가오는 초(超)연결 시대,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해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두 활용한다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실행까지 즉시 연계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빅스비를 더 강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은?", "집에 전등이 고장났는데,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아는 너, 어떻게 바꿔줄래?" 등의 아이디어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자유롭게 모자이크에 올리면 된다. 아이디어가 올라오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8'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종합기술원장인 김기남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면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추천해 선호도를 표시하고, 집단지성으로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8일까지 4만2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대토론회에 참여해 550여건의 시나리오 제안과 댓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제안된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어떤 대화를 주로 하는지 빅스비가 대화 패턴을 분석해 긍정적인 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다가가기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림-뇌파로 사물 조정 등이다.

삼성전자 집단지성사무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들을 과제로 도출해 11월 중에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실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상품화까지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연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일 유럽과 북미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이번 출장은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6번째 출장으로 유럽과 북미를 돌며 AI 등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 AI 총괄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미국 실리콘밸리, 5월 영국 케임브리지·캐나다 토론토·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9월에는 미국 뉴욕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AI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삼성 AI 포럼 2018'도 개최했다.

AI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세바스찬 승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다니엘 리 교수를 영입한 것도 AI 연구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AI 역량 강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AI를 4대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AI 총괄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 거점에 약 1000명의 AI 선행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삼성 스마트TV

### 삼성페이 간편결제 탑재

삼성전자는 스마트 TV 내에 탑재된 T-커머스 전용 결제 시스템 '삼성 체크아웃'에 삼성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 체크아웃은 2015년에 삼성전자 자사 스마트 TV 내에 처음 도입한 TV 전용 전자상거래 서비스(T-커머스)다. TV를 통해 각종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이번 삼성 체크아웃의 삼성페이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TV 내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기존 삼성페이 사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 없이 스마트 TV 내 삼성 어카운트 로그인만으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결제 수단 선택 단계에서 삼성페이를 선택한 후, 스마트폰에서 인증만 하면 바로 결제가 완료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